

##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모듬4  
2015. 11. 28.

### <<참석자>>

- ⑩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⑩ 레고 — 서울인권영화제
- ⑩ 천웅소 — 참여연대
- ⑩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⑩ 안영신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4.16성북연대

### <<질문1>>

김혜진

- ⑩ 가까운문장 — 4. ktx 승무원 최종폐소를 보면서 판결내용이 끔찍하다.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다며 안전교육도 권한도 주지 않았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300km를 달리는 ktx의 안전을 외면하는 이유가 결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속셈 때문인가. 끔찍하다. 9. 기간제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즉시 평등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⑩ 먼문장 — 13.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추상적이어 보인다

천웅소

- ⑩ 가까운문장 — 11. 반복되는 재난의 재발을 막지 않기 위해서 기억과 기록으로부터 시작할수 있을듯
- ⑩ 먼문장 — 13.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레고

- ⑩ 가까운문장 — 8.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사건해결의 전과정에 참여할 권리. 세월호든 어떤 인권침해든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표명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통치는 것보다 사과가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암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소외되고 힘이 없어보인다는 생각.
- ⑩ 먼문장 — 13. 세계인권선언을 그냥 옮겨온듯이. 급마무리 느낌.

안영신

- ⑩ 가까운문장 — 3. 연대와 협력. 함께살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듯 하다. 교육, 가정, 사회에서까지 함께사는 가치들의 무게가 다가온다.
- ⑩ 먼문장 — 먼 내용은 못 찾겠다. 굳이 찾자면 전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더 밝혀지면 좋겠다.

장여경

- ⑩ 가까운문장 — 6. 진실의권리. 참사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청와대는 성역인가. 왜 이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연행하고 가두는가.
- ⑩ 먼문장 — 선언전문에서 한국사회의 침몰을 야기한 모순과 부조리가 무엇인지 집약적으로라도 전제할 필요가 없을까. 생명보다 이윤. 가만히 있으라는 억압. 납품비리. 구조실패. 규제완화 등. 그래야 어떤 사회적 지향을 가질지 13이 더 분명해질 것 같다.

### <<질문2>>

#### 안영신

- ⑩ 세월호관련 — 11.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재난에서 권리주체로서 함께할수 있는 방법은 기억과 기록이다. 함께 하자.
- ⑩ 세월호를넘어 —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레고

- ⑩ 세월호관련 — 11. 여러 형태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뭔가를 만들어도 볼수 없도록 하는 시대이다. 단편들 상영할수 없도록 한다거나. 기록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기록들이 또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 ⑩ 세월호를넘어 — 12. 인권선언도 저항할 권리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말할수 없게하는 것을 말할수 있게하는 저항. 이야기되면서 이야기로 저항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 천웅소

- ⑩ 세월호관련 — 9. 기간제 교사도 평등하게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생존자였던 화물기사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받는 비난들. 대구지하철에서도 실종자 인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 ⑩ 세월호를넘어 — 11. 약자를 공동체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광주도 그랬다. 기억과 기록으로 한발더 나가야 한다.

#### 김혜진

- ⑩ 세월호관련 — ⑧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수 없으며...⑨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통제와 억압이었다. 지휘하는 자의 편의이다. ⑧돈으로 살수 없다...⑨ 어제부터 안전산업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 다 해결이 안되는데 산업의 논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 ⑩ 세월호를넘어 — 4. 참여할 권리. 삼성전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몰랐다.구미불산도 지역주민들이 몰랐다.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알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 한해 2천명씩죽지는 않을것. 원진레이온도, 원전도.

#### 장여경

- ⑩ 세월호관련 — ⑧정부의 책임⑨. 416참사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같이 작동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안전에 대한 불감. 생명보다 이윤. 가만히 있으라는 억압. 납품비리. 구조실패. 특히 규제완화는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하는 음해가 돌고 있던데, 304명의 희생자라는 숫자도 거대한 비극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 ⑩ 세월호를 넘어 — ⑧기억과 기록⑨. 세월호 이후 그 이전에 신문의 단신으로 넘겨보았던 여러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참사를 계속 기억하고 기록해야 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 <<질문3>>

#### 개인약속

- ⑩ 레고 — 안전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영화를 함께 상영하고 나눌 것
- ⑩ 천웅소 — 연말 송년회때 친구들에게 알리고 권유할 것
- ⑩ 안영신 —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을
- ⑩ 김혜진 —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을 알고 행동할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에 힘쓰겠다
- ⑩ 장여경 — 세월호 진상규명, 그이후 해결될 때까지 416연대 참여

모듬약속

- ⑩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세월호 참사와 인권 문제를 알리고 416연대 회원가입과 실천할 것